

40 Days for Life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는

전 세계 64개국 이상에서 낙태 종식과 낙태 반대를 위해 동일한 내용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와 금식, 위기 임신 지원센터 봉사 등과 함께 40일간 밤낮 기도하는 국제 낙태 반대 기도 단체입니다.

텍사스 브라이언의 낙태 지원 센터 폐쇄를 목적으로 ‘Brazos Valley Coalition for Life’의 4명의 회원에 의해 노아의 방주, 모세의 40일 시내산, 예수님의 40일 광야 등 성경에서 중요히 언급되는 40일을 기준으로 2004년에 40일 동안 24시간의 금식과 기도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다른 도시와 나라로 확장되었습니다.

현재 매년 봄 사순절 40일과 가을 40일에 집중적으로 기도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21년 가을 캠페인을 첫 시작으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기도 운동의 결과 (2022년 8월 기준) >>

21,989명의 생명이 낙태로부터 구조됨
117개의 낙태 지원 센터가 폐쇄됨
240명의 낙태 시설 종사자들이 직장을 그만둠
20,000개의 교회가 참여함
9,207개의 지역 캠페인이 진행됨
64개의 민족, 국가가 기도 캠페인에 참여함
1,000,000명의 기도 자원봉사자가 봉사함

기도와 금식

Prayer and Fasting

지속적인 기도 운동

Constant Vigil

공동체 봉사활동

Community Outreach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은 기도와 금식이라는 기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우리는 이 기도와 금식이 낙태를 종식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우리는 40일 캠페인 기간에 매일의 기도문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하며, 여러분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And said unto them, This kind can come forth by nothing, but by **prayer and fasting**. KJV Mark 9:29)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은 40일간 집중적으로 생명 존중 문화 확장과 낙태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평화롭고 교육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40일 동안 현장에서 기도와 함께 피켓을 통해 비극적인 낙태 현실에 대해 사회와 주변 공동체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기간에 우리는 위기 임신 가운데 있는 여성들을 낙태 후유증으로부터 보호하고, 태아가 안전하게 출생하도록 돕는 단체들을 소개합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고한 생명을 구하는 그 사명 안에서 하나가 되며 또한 참여자들은 배지 또는 스티커 등 프로라이프 물품을 통해 삶 속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 + 한국 본부 홈페이지 : 40days.forlife.or.kr
- + 미국 본부 홈페이지 : www.40daysforlife.com
- + 유튜브 홍보 채널 : '갓 이즈 프로라이프'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서약서

1.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믿으며
수정부터 인간의 생명임을 인정하고 보호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나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동안
현장과 가정에서 40일간 성실히 기도에 동참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나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동안
이틀 이상 현장에서 평화적인 기도로 봉사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나는 교회와 이웃에게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며
이 땅에 태아 생명 존중 문화를 세워감에 헌신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공동 기도 제목 |

<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을 위해 >

캠페인의 모든 봉사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적이고 겸손한 캠페인이 되게 하소서.

캠페인에 대해 반대하는 자들에게 겸손과 사랑과 자비로 응대하게 하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참여한 모든 봉사자의 마음과 생각, 오고 가는 길을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 주님의 백성을 위해 >

낙태 경험자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와 위로와 치유를 받게 하소서.

용서와 치유를 받아 회복된 자들이 생명을 위해 일어서게 하소서.

낙태에 무감각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태아에 대해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낙태를 용납하고 방관했던 자들이 회개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수많은 태아의 죽음과 그 무죄한 피 흘림에 침묵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 캠페인 이후에도 태아 생명을 위해 기도와 봉사, 후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 한국 교회를 위해 >

낙태에 대해 방관하고 침묵한 성직자들이 낙태의 공범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소서.

낙태 경험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태아 생명의 소중함과 성의 거룩함을 가르치게 하소서.

교회가 임신 지원센터를 세워 위기 임신 여성들과 태아들을 섬기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입양 문화가 활발히 이뤄지게 하소서.

< 위기임신 지원단체, 미혼모·부 지원단체, 입양 관련 단체, 프로라이프 단체를 위해 >

이와 같은 단체들이 더 많이 세워져서 위기 임신 여성과 태아를 섬기게 하소서.

기도와 후원과 봉사가 넘치게 하셔서 더 많은 생명이 살도록 도와주소서.

다음 세대들 가운데 프로라이프로 활동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 대한민국을 위해 >

여성의 인권을 위해 태아가 죽어도 된다는 잘못된 주장이 힘을 잃게 하소서.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프로라이프 문화가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하소서.

낙태죄 개정안이 태아를 소중히 생각하는 개정안으로 속히 개정되게 하소서.

‘보호 출산제’가 마련되고 ‘남성 구상권 청구’가 실효적인 제도로 마련되게 하소서.

입양제도가 완화되어 더 많은 아기가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인도하소서.

준비를 위한 기도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한 길을 걸을 때 심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지금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주겠다.
(역대하 7:14절, 새번역)

[묵상]

한국은 과거 정부의 주도로 진행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낙태를 피임이나 인구 조절의 한 방법처럼 인식했습니다. 또한 임신 초기에는 태아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초음파 장비로 임신 5~6주이면 심장이 뛰는 태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태아는 세포가 아닌 생생히 살아 있는 인간임을 증명했습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연간 낙태를 5만 건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들은 합법적 낙태보다 불법적 낙태가 더 많이 있음을 밝히며 불법 낙태 포함, 연간 낙태를 100만 건 정도로 추정합니다. 이후 한 빅데이터 연구진은 2007년부터 약 10년간 낙태 검색량의 차이가 없음을 통해 낙태율이 크게 줄지 않았음을 밝히며, 보건복지부 발표를 기준으로 해도 연간 약 50만 건(하루 1,300명)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낙태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며 자연적 죽음이나 재난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임의로 죄 없는 태아들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이 죄 없는 어린이들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에게 호소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저주받아 황폐하게 된다고 말합니다(창세기 4:10~12).

이것을 교회 바깥의 문제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낙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아기를 희생하는 낙태는 자녀를 번제로 바치는 몰렉 제사의 현대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레위기 18:21). 이제 교회는 생명의 소중함과 낙태의 문제를 설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태아가 생명인 줄 몰라서 행했던 일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생명의 창조주를 믿는 모든 교회는 이제라도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잠언 22:6).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이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비난과 정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치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지도자라 일컫는 목사와 장로부터 과거 잘 알지 못하고 했던 낙태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감추지 않고 드러내어 낙태 문제를 직면하고 회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체험하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간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낙태 경험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용서와 치유를 누리는 자리로 초청해야 합니다(요한복음 8:11).

미국의 메리 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낙태로 잃어버린 수백만의 생명에 대해, 그리고 낙태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는 훨씬 더 많은 사람에 대해 의도치 않은 공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낙태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둡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야 할 우리는 부족한 지식과 두려움 때문에 계속 방관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낙태의 공범인 셈입니다.”

[기도]

용서의 자비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는 주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낙태라는 가장 심각한 죄악에 침묵하며 어쩔 수 없이 낙태할 수도 있다고 암묵적으로 동의해왔습니다. 가장 끔찍한 죄를 멈추라고 말하지 못했고, 작은 생명들이 살 기회를 얻도록 고민하는 임신부들에게 손 내밀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성의 거룩함과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낙태에 대해 침묵하고 무지했음을 회개합니다.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깨닫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일어서겠습니다. 회개하고 새롭게 헌신하는 저희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이 40일 기도 캠페인 가운데,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모든 교회와 신자들에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진리의 빛을 비추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낙태를 허용하는 생각이 생명을 지키는 생각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 낙태 경험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꺼이 용서해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신자들이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회복시켜주셔서 생명을 위한 걸음을 걷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일 차를 위한 기도

낙태의 죄에 연관된 모든 이들에 대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뿔 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요엘 2:15~17절, 새번역)

[묵상]

낙태 희생자의 수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매일 수백, 수천 명에 달하는 무죄한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미 알고 보았던 영혼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많은 아기는 탄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슬픈 사실은 우리를 압박하고 우울하게 하지만, 이런 헤아릴 수 없는 어둠 속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40일을 보내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골고다 없이 부활도 없듯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슴 아프고 힘겨운 낙태라는 문제를 가지고 4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40일 기도 여정은 분명 우리를 골고다 언덕을 넘어 부활의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먼저 이루신 그 여정을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그가 이루실 부활의 역사를 기대하며, 아래 시편 저자를 통해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 모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제물을 받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1:12~17 (새번역)

[기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흉악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일 뿐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낙태의 죄와 관련하여 힘들어하는 자들이, 용서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 치유를 받아들여 회복되고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에 따라 전 세계에서 같은 시간에 진행되는 이 기도 캠페인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임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용기, 지혜와 체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낙태라는 힘겨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힘든 마음보다 주님에게 소망을 두며 이 기도회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예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보는 자들에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일 차를 위한 기도

교회 지도자들이, 인간의 생명을 보살피는 사역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사도행전 6:1절, 새번역)

[묵상]

예수님의 승천 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사도들의 활동으로 인해 전례 없는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은 제자가 되었고 여러 봉사로 이웃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계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음식 배급에서 홀대받는 일이 일어났고 그것은 교회 내의 하나 됨을 깨뜨리는 불평불만을 낳았습니다.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들을 뽑아 구제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 지도자들이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관심을 가져야 함과 그 소외된 자들을 전문적으로 섬길 사람을 세워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인권을 이야기하며 소외 계층을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외된 자 중 가장 소외된 자, 부모에게조차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는 가장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 태아를 돕는 일은 주저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동안, 모든 사람이 가장 소외된 자가 바로 태아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 어떤 인권보다 우선시 되는 살 권리, 바로 '생명권'을 위해서 말입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지켜 달라고 기도하며 목소리를 내고, 또 예기치 않은 임신에 곤란을 겪는 여성들을 도와야 합니다. 누구보다 교회는 이 영역을 전문적으로 섬길 봉사자를 세워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주님의 뜻이듯, 태아와 임산부들을 돕는 것 또한 교회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기도]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삶을 아시고 돌보시며 채우시는 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친밀히 살피시듯 태아와 어려움 가운데 처한 임산부들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동안 주님 마음처럼 그들에게 관심 두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태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와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태아의 생명을 건지는 일과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임산부들을 도울 자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구제 사역 중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낙태를 경험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정죄가 아닌 그리스도의 용서와 치유,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자들이 생명을 위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태를 고민하는 임산부를 섬기는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넘치는 생명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성을 불쌍히 여겨 낙태를 인정하는 교회가 아닌, 여성과 태아 모두를 불쌍히 여겨 그들 모두가 함께 살도록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일 차를 위한 기도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동안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나?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마태복음 6:25~26절, 새번역)

[묵상]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삶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살피십니다. 흔하디 흔한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보살핌은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말해 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태아들의 삶을 지키시고 살피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간 생명에 대한 이런 친밀한 이해와 돌보심은 우리 인간 생명의 모든 단계, 즉 태아, 영아,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까지 모든 기간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인간의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담대하게 실천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최근 반려동물이 유행하게 되면서, 동물을 보호하자는 동물권을 요구하였고 2021년 3월 12일 동물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태아를 보호하는 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선택권이 더 중시된 법안들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도 보호하는 이 시대에, 결코 태아의 생명에 대한 책임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이 교회와 사회 모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생명이 소중하되 그 중에서도 인간의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기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아시고 지키시고 보살피 주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 수많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생명과 저희의 삶만 소중히 여겨 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과 그중에서 가장 소외된 자인 태아를 위해 이제라도 많은 관심을 두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저희의 마음과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생명을 저희도 함께 지켜낼 수 있도록 믿음과 긍휼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전할 때 사랑과 지혜로 전하게 하시고, 메시지를 듣는 자들의 마음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태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가득히 부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일 차를 위한 기도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도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헌신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누가복음 1:30~33절, 새번역)

[묵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낮은 땅으로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천사는 동정녀 마리아를 방문하여 태어날 그리스도의 일생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세상의 모든 태아도 그들이 태어나기 전, 그들의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궁은 ‘모든 인류의 첫 번째 집’입니다. 그곳은 모든 생명이 시작된 곳이자, 모든 이들의 일생이 시작된 곳입니다. 모든 인류는 그곳에서 위대한 행진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여성을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여성의 태를 아주 특별한 장소로 계획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이 시작되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시작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생명 하나하나가 그들이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태어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동일하게 살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을 축복하며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태어나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 잉태된 그 자체만으로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도움이 여전히 필요하듯, 태아는 태 안에서 엄마의 도움을 받고 있을 뿐,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땅에 가장 작은 태아의 모습, 가장 작고 연약한 존재로 오신 하나님의 겸손한 성육신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잉태되었을 때부터 놀라운 사명을 가지셨던 것처럼,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잉태된 모든 영혼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그 모든 잉태된 영혼들을 저희가 소중히 섬길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인류의 첫 번째 집, 그곳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소중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이 마땅히 태어날 수 있도록 임산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잉태케 한 남성들에게 여성과 태아에 대한 긍휼과 사랑, 책임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기치 않은 임신을 두려워하는 대신,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만큼은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임산부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출산과 양육을 어려워하는 임산부들의 삶을 보살피도록 저희와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육신을 본받아, 저희가 자신을 부인하고 가장 존귀한 가치, 태아의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일 차를 위한 기도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 관한 진리를 깨달아,
늘 주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가 주릴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 때에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마태복음 25:35~40절, 새번역)

[묵상]

마지막 심판 날의 예수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보여 줍니다. 굶주린 자들, 목마른 자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등 돌봐야 할 자들을 돌보지 않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악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들을 섬긴 의로운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우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것을 사전에 경고해 주셨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연민 어린 관심과 실제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조차 관심을 두지 않은 낙태의 위험 속에 있는 태아는, 가장 가난하고 연약하며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야말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자라면, '이 가장 작은 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며 우리가 양과 염소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당신의 엄위한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경각심을 갖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낙태에 참여했던 죄와 그것들에 대한 모든 무관심과 방관을 자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 시간, 당신의 자녀 중 ‘가장 작은 이들’을 돌보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희의 이기적인 무관심으로, 살 기회를 빼앗긴 모든 생명을 위해 이제부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삶의 모든 분야에서 진정한 생명의 수호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과 용기,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격과 감사의 표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일 차를 위한 기도

모든 이들이 인생의 짧음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서 12:7절, 새번역)

[묵상]

죽음에 대한 비유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죽음에 대해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바로,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이 절대적 종말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이 확실한 만큼, 모든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또한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에 생명을 부여하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또한 **어떠한 인간의 생명도 우연히 생겨나거나 아무런 목적 없이 창조된 생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창조된 피조물들은 그 누구도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니스웨 백성들까지도 아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탄생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탄생하였으며,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일 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가 남을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선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선택은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존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살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저희의 날들이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모든 소중한 날들을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저희의 결심이 아닌 성령의 도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저희 영혼에 참된 양식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나라의 양식에 배부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든 저희를 부르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부끄럽지 않게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영혼들을 살리는 삶이듯, 죽어가는 태아들을 살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을 살리는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먼저 맛보며 살아가는 삶의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일 차를 위한 기도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구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풀어주기 위한
마음과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 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 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 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누가복음 4:18~19절, 새번역)

[묵상]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많은 종교행사에서 인용되어 왔고, 책이나 노래로도 제작되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복음을 세상에 전파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으로도 받아들여야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이들’, ‘마음이 부서진 이들’, ‘잡혀간 이들’, ‘눈먼 이들’, ‘억압받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의지해야 할 자신의 엄마로부터 버림받는 태아들만큼 마음이 ‘가난한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낙태가 당신과 당신 아기에게 최선’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엄마들처럼 ‘마음이 부서진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 자신의 생명이 죽음에 넘겨지는 태아들만큼 ‘잡혀간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곧 다가올 자신들의 죽음을 기다리는 방이 되어버린 자궁의 암흑 속에 놓여있는 태아들보다 ‘눈이 먼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나 교회, 그리고 부모에 의해 죽는 것이 합법화되어버린 태아들만큼 ‘억압받는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관심을 둔 이들에게 우리 또한 같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태아들과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곤란 속에 놓인 여성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기도]

저희에게 가장 기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저희가 자유를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 자유와 평안을 누리듯

많은 이들도 이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가난한 자, 마음이 부서진 자, 잡혀간 자, 눈먼 자, 억압받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중에서도 부모에게조차 외면받고, 합법적으로 죽음당할 상황 속에 놓인 가장 외로운 태아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기치 않은 임신 가운데 낙태를 고민하는 엄마들에게 저희를 보내 주시고, 그들을 섬기어 죽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수많은 태아가 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보호 출산법>을 제정하여 주셔서, 태아들이 태어나 유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키우기 힘든 상황 속에 기관에 맡겨진 모든 아기가 따뜻한 가정에 입양되어 자랄 수 있도록 입양 제도를 완화해 주시옵소서.

태아를 죽이는 법안이 아닌, 살리는 법안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법안을 세워달라고 위정자들에게 마땅한 것을 겸손히 요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법적으로 태아가 죽게 되는 법안이 이 땅에서 사라질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일 차를 위한 기도

착한 사마리아인의 정신과 모범이
우리과 모든 시민의 마음과 생각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었다. 다음 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누가복음 10:30~37절, 새번역)

[묵상]

예수님께서서는 이 비유를 통해 폭력과 죽음의 문화에 놓인 희생자들에게 자비를 보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러나 의아하게도 제사장과 레위사람은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 사람을 돕기 위해 가는 길을 멈춘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은 이 질문을 반대로 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 사람을 돕기 위해 가는 길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

어떤 사람들은 태아를 살리는 일에 동참할 때 이러한 염려를 합니다. '내가 이 일에 동참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낙태 경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낙태 경험자들을 정죄하는 자들이 아닌, 오히려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며, 잠시 그들이 오해할지라도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은 반드시 전달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우리의 작은 용기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태아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보다, 동참할 때 일어나는 일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

는 가치를 가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 말은 ‘너를 위해 염려하지 말고, 그를 위해 염려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피해를 받지 않을까?’ 염려하는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이 생명을 잃지 않을까?**’ 염려하는 **공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려움을 주님께 게 거두어 달라고, 그리고 생명을 위해 용기를 낼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두려움 없는 온전한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 받은 그 사랑 안에 저희가 거함으로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때로 두려움이 생겨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진리를 전하는 것을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이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두려움을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담대히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조금 불편할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한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도 그와 같이,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공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일 차를 위한 기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속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복음 1:14절, 새번역)

[묵상]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을 본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걷고, 먹고, 대화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고 그분의 승천과 함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그 첫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모든 면에서 실제 하는 분이며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받은 약속은 우리가 받은 약속과 같은 약속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그분의 실제인 말씀과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며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며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나누시기를 원하며, 그분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같이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태아와 같이 가장 작은 자들을 섬기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닌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자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기꺼이 행할 기쁨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먼 곳에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저희 사이를 가로막는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 왜곡된 생각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깨달

아 알 수 있는 정결한 마음과 생각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시고 마셔도 목마른,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님을 통해 마시게 하옵소서.

이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신자가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닌, 이 자리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태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더욱 주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헌신할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일 차를 위한 기도

임신 지원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들을 돕는 자들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하는 자들과
입양시설에 대해 알려주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 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 주어라.
(시편 82:4절, 새번역)

[묵상]

한 여인이 그 지역 임신 지원센터에 도착하면, ‘생명을 구해내는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먼저 그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녀가 어떤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지 자세히 들으며 그것을 도울 만한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도하며 그녀의 짐을 함께 지고 생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잉태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는 모습입니다.

국내의 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미성년자 커플이 임신했다며 임신 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하셨지만, 본인들은 아기를 낳고 싶어 임신 지원센터를 찾은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아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함께 부모님을 만나 국가 지원과 민간단체 지원 등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돕는 방법들을 소개했습니다. 또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안학교를 연계하여 다니던 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그 미성년자 커플은 건강하게 아기를 낳게 되었고, 아기 엄마는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 유아교육을 전공하며 공부와 육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기 아빠도 학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커플은 곧 결혼식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낳기를 잘했다’고 말합니다.

많은 임신 지원센터들은 이렇게 생명의 탄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출산보다 낙태를 권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임신 지원센터와 입양단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센터들과 입양단체들이 곤경에 처한 더 많은 임신부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기도와 홍보를 하며, 재정 후원과 봉사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들이 직접, 이러한 곤경에 처한 임신부를 도울 수 있는 임신 지원센터를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낙태 합법 판결 이후 지금까지 약 6,300만 명의 아기들이 죽어갔

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많은 교회가 깨어 일어나 임신 지원센터를 세워 위기 임신 여성들을 도와 태아들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그래서 현재는 낙태를 지원하는 센터보다,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센터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법과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며 태아 생명을 존중하는 정치인들에게 투표하며 프로라이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올해 6월 24일(현지 시각)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연방대법원에서 ‘헌법적이지 못하다’는 판결로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와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직접 임신 지원센터를 세워 태아와 여성들을 섬겨야 합니다. 태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국회의원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하신 구제와 섬김을 위기 임신 가운데 있는 여성과 태아를 위해 실천해야 합니다. 이들이야말로 가장 가난한 고아와 과부이자, 세상에 의지할 곳 없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선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많은 어머니와 아기를 구하려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임신 지원센터의 모든 손길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들을 만나는 모든 자가 낙태가 아닌 생명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들을 돕는 손길들이 더욱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초음파를 통해 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을 부어 주셔서, 아기를 포기하려는 마음이 아닌 아기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도 낙태가 아닌 생명을 선택하게 하셔서 입양단체를 통해 또 다른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생명만큼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임신 지원센터들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더욱 많이 세워져서 더 많은 생명이 살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는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고민하는 여성들과 잉태된 태아들을 향해 이 말씀을 적용하며 섬김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선출할 때, 우리의 선택 기준이 그 어떤 것보다 생명 존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일 차를 위한 기도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절로 비칠 수 있기를, 그리고 참여하는 기도 봉사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임을 인지하고 참여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각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에베소서 4:1b~3절, 새번역)

[묵상]

과거 낙태 지원 센터 CEO였고 수많은 낙태에 관여했던 캐럴 에버렛은 무엇이 당신을 태아 편에 서게 만들었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일했던 낙태 시술소 앞에서 저를 위해 매일 기도했던 한 남성이 확실하게 보여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달 후 낙태 시술소를 그만두었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프로라이프 활동을 통해 태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캠페인에 참여하는 우리는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과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태아의 생명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낙태 시술을 직업으로 삼은 그들이 그 죄악의 묶임 속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이 생명을 죽게 하는 일이 아닌, 생명을 살게 하는 일을 선택하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아 죄의 짐을 벗었듯, 그들 또한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사랑과 겸손을 가지고 진리를 전할 뿐입니다.

이 기도 캠페인에 참여하는 우리는 모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태아의 생명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겸손과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늘 겸손과 사랑을 놓지 않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모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를 닮아갈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며, 저희의 삶에 아버지의 아름다운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자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저희를 주의 성령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기간 동안, 저희를 반대하는 자들과 언쟁이나 과격한 대응을 하지 않도록 저희의 부족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과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저희의 말이 아닌 삶을 보고 있다는 것과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만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일 차를 위한 기도

겸손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주와 같이 겸손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9절, 새번역)

[묵상]

낙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상처 입은 사람들이 치유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에는, 엄청난 마음의 고통과 공포가 존재합니다. 즉 심판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따라 조각나는 마음, 그리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떠났던 사람들과 유혹의 시간에 당신을 교묘히 조정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자기혐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무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주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님의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치유를 얻는 방법은 오직 겸손입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제 창조주를 거슬러 큰 죄를 지었고, 후회와 비탄과 슬픔에 휩싸였나이다.”

우리는 낙태를 시도했던 모든 여성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낙태 시술에 참여했던 모든 의료 종사자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낙태를 권하여 그 낙태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를 받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들이 치유를 받게 된다면, 그 누구보다 태아의 생명을 수호하는 수호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며 저희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 캠페인에 참여한 모두가 겸손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겸손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낙태를 실행한 자나, 그것을 집도한 자나, 그것을 방관한 자나, 그것을 권유한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지은 모든 죄를 주 앞에 자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듯, 그렇게 자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치유되고 회복된 자들에게 생명을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을 넣어주셔서, 그 누구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일 차를 위한 기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를 거부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시편 68:5절, 새번역)

[묵상]

많은 사람 중에 자신이 좋은 가정에서 부모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어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될 자신이 없다고 아이 갖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성애 부성애가 없는 것이 아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 한 사람들은 비록 부모가 존재할지라도, 고아와 같이 소외된 경험 가운데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자신의 깊은 외로움을 이성을 통해 해결 받으려 할 때가 많아, 부모가 될 준비 없이 예기치 않은 생명이 잉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 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소중한 자녀를 낙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 중에도 사람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려는 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낙태와 상처가 발생하고 그 낙태와 상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외로움을 가져가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사랑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삶에 힘써야 합니다. 위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연인을 만들고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하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기도]

저희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것 없는 세상에서 저희를 위로하시고,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자주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 있는 것

들과 사람을 통해 외로움을 채우려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혼의 외로움은 오직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들을 붙들고 또한 그로 인해 더 많은 상처를 받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영원한 만족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여 알게 해 주시옵소서. 경험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기대와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과 자녀를 향한 사랑,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그들을 저희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일 차를 위한 기도

낙태 관련 시설 종사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진리를 찾게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에베소서 4:31~32절, 새번역)

[묵상]

우리는 세상의 악과 억압,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오만과 탐욕 때문에 파괴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능은 직접 그들을 심판하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다른 이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낙태 시술자와 낙태 지지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죄악에 묶여 있는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도 아플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 직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해 행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은 죄에 묶인 그들을 자유롭게 해 주실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지 않아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 그들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더 크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을 통해 많은 자가 낙태 시술 관련 종사자의 삶을 버리고, 생명을 위해 활동하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이 국제적인 캠페인을 통해 확인된 수만 해도 무려 2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들에게 감동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정죄가 아닌, 사랑과 긍휼을 담은 기도입니다. 올해 첫 캠페인으로 시작된 한국의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낙태를 지지하고 낙태 시술에 몸담았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변화되고 생명을 위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

모든 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낙태 시술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거나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하시고, 긍휼과 사랑, 연민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낙태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의 마음에 생명에 대한 부담과 양심의 가책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참된 진리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진리로 삶을 돌이킬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태아 생명을 해하는 직업을 버리길 선택할 때 새로운 직업에 대한 길을 보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일 차를 위한 기도

우리가 우리 형제를 지키는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창세기 4:8~9절, 새번역)

[묵상]

성경은 이웃을 돌볼 우리의 의무에 대해 말해주는 구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족, 이웃, 심지어 처음 본 사람인 나그네까지도 돌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책에 나오는 많은 계명으로부터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에 이르기까지, 남을 돌보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라며 친족을 돌보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부당한 임무로 치부했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그저 변명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 15:13)’ 이것이 바로 신적 사랑의 기준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수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의 분명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도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며, 그와 같은 신적 사랑을 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타인을 돌보는 우리의 의무를 피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병자와 노인들, 특히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존재인 태아를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마 26:11)’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하지 않는지 이 시간에도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훗날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도 같을 것입니다.

[기도]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저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실 의무가 없으심에도 저희를 구원해 주신 당신의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빛진 저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돌봄과 섬김을 명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고, 나의 삶과 나의 미래를 위해서만 재정과 시간과 열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과 자신만을 생각하는 저희의 좁은 시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소외된 자 중에서도 가장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아 죄 없이 죽어가는 태아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이기적인 마음과 태도로 태아의 죽음에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위해 나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가 마땅히 돌봐야 할 자들을 돌보지 않을 때 우리를 책망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기적인 삶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이웃, 그리고 태아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일 차를 위한 기도

임신 지원센터의 개별적 돌봄, 무료 초음파 검진, 지속적인 실질적 지원은
무고한 피를 흘림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지키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임신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아기 엄마들과 아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1:28~29절, 새번역)

[묵상]

한국의 많은 사람은 낙태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시기를 임신 10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낙태는 임신 10주까지 합법으로 인정되었고, 대부분 합법으로 진행된 낙태만 조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신 10주 이후의 태아를 낙태하기 원하는 많은 여성이 현금으로 불법적 낙태를 해왔다는 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한 산부인과의 간호사에 의하면, 실제로 산부인과에서 진행되는 낙태의 평균 주 수는 임신 10주가 아닌, 임신 20주 이상이라고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최근 21주에 태어난 미숙아가 건강히 1살 생일을 맞이했다는 뉴스를 생각해 볼 때, 태어나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아기들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73년 미국의 낙태 합법화 이후, 많은 교회가 임신 지원센터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낙태를 지원하는 센터 인근에 찾아가, 낙태를 위해 그곳에 방문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방문한 여성들이 낙태 지원센터가 아닌,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센터로 옮겨가기를 겸손한 자세와 사랑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을 통해 그렇게 건져진 생명이 약 2만여 명에 이릅니다.

이제 교회는 현재 운영 중인 임신 지원센터들을 지지하고 도와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아기를 살리고 더 많은 여성을 도울 수 있도록 교회에서 임신 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설립해야 합니다. 우리가 낙태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해 줄 때, 무죄한 아기의 생명을 구할 뿐 아니라, 무죄한 피 흘림으로 이 땅이 황폐해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 범죄로 인해 땅이 저주받아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 4:0~12).

[기도]

저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은혜로 거두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맡긴 저희의 모든 죄악과 염려, 근심을 가져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주의 은혜로 인해 거두어진 것처럼,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 속에 놓인 여성들의 무거운 짐이 덜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섬길 기회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낙태의 위협 속에 있는 태아들이 살길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절망에 빠진 여성들을 임신 지원센터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낙태가 아닌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임신 지원센터에 복을 내려 주셔서, 더 많은 후원과 봉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직접 임신 지원센터를 마련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생명을 품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일 차를 위한 기도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의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창세기 2:7절, 새번역)

[묵상]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주셨으며,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돌아가셨고,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창조할 필요가 없고 인간이 굳이 필요하지 않으신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쁨으로 창조하시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지금도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생명을 지키시며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주관하시는 그 생명을 지키는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볼 임무를 맡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타인의 생명을 자신의 것처럼 소유하거나 파괴할 자격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낙태는 하나님의 소유인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파괴하는 낙태에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여성의 몸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태아의 생명을 여성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생물학자, 유전학자들은 ‘수정부터 인간 생명이 시작된다는 사실은 과학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잉태된 생명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누군가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도]

육체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에게 가장 존귀한 생명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참

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낙태도 있다며 어떤 사람은 태어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저희가 좌우하려 했던 어리석고 눈먼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소유이듯, 이 땅의 모든 생명 또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잉태된 생명일지라도, 거룩하지 못한 관계를 회개하고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지 못한 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해 그보다 더 약한 생명을 죽이는 선택을 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일 차를 위한 기도

부모가 되는 것과 더 많은 자녀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 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여 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시편 127:3~5절, 새번역)

[묵상]

많은 사람은 낙태를 미혼인 여성들이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낙태의 60~70% 정도가 바로 기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부가 있는 가정 안에 새로운 자녀가 잉태되었음에도, ‘먹고살기 바빠서’,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아기를 낳을 수 있나?’, ‘경력 단절의 두려움’ 등의 고민으로 낙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혼외 임신으로 인한 낙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외의 임신의 아기라고 해도 그 아기가 인간이 아니거나, 생명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아기를 낳아본 사람들은 다 기억할 것입니다. 원하고 원하던 아기를 가지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에게 천사가 찾아왔다’라며 생명의 소식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맞이하는 경우, 많은 사람은 그 존재를 나의 아기로 생각하지 않고 빨리 해결해야 할 존재로 생각합니다. 조금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만 지금은 키울 수 없다는 합리화와 태어나는 아이도 불행할 거라며 태아의 생명을 외면한 채 자신의 미래와 평안을 위해 낙태를 선택합니다. 사실 아기의 처지에서 생각해본다면, 행복하지 않게 살지라도 죽는 것이 더 나을 수는 없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믿는 자들조차 자녀를 우리가 조절해서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분명히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명령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득한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첫째 되는 명령을 스스로 거스르며, 우리의 미래와 편안함을 위해 낙태를 선택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나의 미래와 편안함을 위해 내 경제적 상황이 더 나아지기 위해 나의 자녀를 낙태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몰렉에게 바치는 제사와 같습니다.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는 자신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자기 자녀를 불살라 우상에게 바치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저희를 자녀로 불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거룩하신 관계 안으로 저희를 초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돌보시고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아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자녀들을 돌보게 하시기 위해 저희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족 계획이라는 명목으로 어떤 자녀는 소중한 자녀로 여기고, 어떤 자녀는 내 미래의 풍요를 방해하는 존재로 낙태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결코 가벼울 수 없는 저희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도 주님의 것이며, 그들의 모든 삶도 주님의 것인데, 저희는 생명을 잉태하는 것과 출산하는 것을 저희 선택이라 생각하며 많은 생명을 비참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세상의 풍요에 눈이 멀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기 위해 가장 소중한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선물을 파괴했습니다. 알지 못해서, 알고도 지은 모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더 나은 풍요로움 위해 낙태를 ‘괜찮다’고, ‘어쩔 수 없는 낙태’라고 말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생명은 주님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녀를 갖게 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소망으로 미래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일 차를 위한 기도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도록 기도합니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욥기 31:13~15절, 새번역)

[묵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자리는 누구도 특권이 없는 평등한 곳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이들이 동등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에 대한 주님의 기대를 민감하게 의식하며, 특별히 약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직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욥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어떠한 좋은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본능적으로 자신도 타인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야 함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엄청난 죄악이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만일 자신의 풍요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자기에게 벌을 내려 달라고 빌기도 하였습니다.

잠언 3장 27절은 말합니다. ‘너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우리는 욥과 같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명철, 건강을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마 26:11)’고 말씀하신 이유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역할임을 말해줍니다.

[기도]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것들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

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저희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님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지듯, 많은 자는 없는 자들을 위해 베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웃에게 넉넉히 베풀지 못하고 저희만의 삶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용해 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의 어려움을 바라볼 때, 그것을 그저 그들의 잘못으로만 치부하며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뿐 아니라, 저희보다 없는 자들을 위해 베푸는 삶이 당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수 있는 자는 도울 수 있기에 주께 감사하고, 도움을 받는 자는 도움을 받기에 주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을 주께서 보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주의 백성들이 더욱 깨달아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아기를 출산하는 것을 주저하는 자들을 향해, 나의 것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를 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일 차를 위한 기도

수정된 순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잉태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 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었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 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눌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창세기 25:21~23, 새번역)

[묵상]

인간은 수정된 순간, 세상에 단 하나뿐인 DNA가 형성됩니다. 성별, 인종, 머리카락 색, 성향까지
모두 수정된 그 한순간에 결정됩니다. 리브가에게 잉태된 쌍둥이, 바로 야곱과 에서에 대해 말씀하
신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태아 때부터 뚜렷한 인격의 특징을 지닌 사
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우리의 인격과 기질을 포함한,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
을 계획하셨습니다. 뚜렷하고 유일무이한 인격을 지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창조에 의해 잉태된 아이들이, 세상 빛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원치 않는다는 이유
만으로 생명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수정부터 그 인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주신 하나님에게 그들의 인생을 맡기며, 더욱 돌보아 주시고 주관해 주시도록 기
도해야 합니다.

[기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로 저희를 빚으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같은 사람 없이 단 하나의
존재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단 하나뿐인 존재로 특별하게 지음 받았듯, 예기치

않은 임신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 또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특별하게 만드신 그 영혼 하나하나를 저희가 존중하게 하시고, 그들이 헛되이 죽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많은 단체의 활동들에 더욱 주의 도움을 베풀어 주소서. 저희도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활동에 더욱 기도와 섬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용기와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일 차를 위한 기도

매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착용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강력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12~13, 새번역)

[묵상]

사단은 우리에게 낙태는 여성이 알아서 선택할 문제라고 말합니다. 또 낙태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생명을 소중히 돌보는 청지기의 직무는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존중하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정책과 법 제정에 대해 겸손하지만 단호하게 진리의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생명과 관련한 문제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갑옷을 매일 입어야 합니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14절)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막고(14절)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지켜야 합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신을 신고(15절) 담대히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잡고(16절) 세상의 비난이 두려움을 주지 못하게 막아 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17절) 구원의 확신 아래,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17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갑옷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사단에 대적하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가운데 역사하는 살아 계신 말씀은 모든 비진리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갑옷을 입고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해야(18절) 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맡겨 드려야 합니다.

[기도]

모든 것에 이미 승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도 주시려, 전신 갑옷과 말씀의 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밝히 아시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사단이 주는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주신 전신 갑옷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말씀으로 모든 거짓을 깨뜨리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쟁은 모두 주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임을 기억합니다. 저희의 방법과 뜻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닫힌 눈을 열어 천군 천사를 보게 하시며,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싸움 후에 지쳐 쓰러지는 자가 아닌, 모든 것을 감당하고 굳게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일 차를 위한 기도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이렇게 하신 것을, 이것들 가운데서 그 무엇이 모르겠느냐?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욥기 12:9~10절, 새번역)

[묵상]

욥은 온갖 역경과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는 자기 가족을 포함한, 가진 것 모두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지독한 질병을 경험했고, 친구들로부터 조롱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의 믿음과 그의 하나님에 대해 미심쩍어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이 모든 생명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근본적인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만들어지고 또한 살아가도록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조밀하게 지어지는 때부터,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날까지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손안에 모든 피조물의 생명과 모든 인류의 숨이 놓여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욥을 통해 그의 이웃과 그를 멸시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심했던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며 울부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주님께서서는 욥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저희가 살 기회를 얻고 주님 안에서 참된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가볍이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지 않은 삶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저희를 붙잡히 여겨 주시옵소서. ‘초기 낙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이 땅에 생명 존중 문화가 형성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프로라이프 활동에 관심을 두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며 참여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며 자라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겠습니다.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생명의 소중함과 거룩한 성의 가치관을 심어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소중한 한 생명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존감을 느끼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이 아닌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는 자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3일 차를 위한 기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할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 버린 이 식물을 네가 것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십이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 4:10~11절, 새번역)

[묵상]

요나는 흉악한 죄가 가득하고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인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보다, 자신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한 식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요나 뿐 아니라 우리도 잔인한 테러범보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반려동물을 더 사랑하고, 길가에 추위에 떠는 노숙자보다 내 자동차를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과 식물, 동물, 물건들을 같은 가치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장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이었다고 말해 줍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인간을 위해 세상과 동물,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죄가 가득한 민족을 멸하지 않으셨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흉악범 심지어 독재자나 테러범까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지, 사람을 판단하여 누군가에겐 전하고 누군가에겐 전하지 않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았음을 겸손히 기억하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가려진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누구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 또한 얼마나 사랑하기 힘든 존재였는지,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자가 아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가 낙태를 지지하는 자들을 대할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께 저희가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 같이, 저희도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단체와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러한 단체와 교회들을 섬길 기회를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가 소중한 생명을 보살피도록 임신 지원센터를 설립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가 가진 것들을 생명과 생명을 위하는 자들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아끼지 않고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사용하도록 기쁘게 순종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일 차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 참여하는 우리의 헌신에
복을 내려 주시고 기도의 결실을 보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 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 보고 있었다.

(느헤미야 1:10~11절, 새번역)

[묵상]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생명을 위한 사역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켜 큰 뜻 안에 결속시켰고, 그룹을 조직하여 일이 진행되도록 했으며, 반대 무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섰고, 실망했을 때는 하나님께 의탁하였으며, 마지막에는 성취된 것들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또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한 애통해하는 심령을 가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명성이 떨어질 것을 슬퍼하였고, 또 그 도시와 그 안의 백성들이 안전하지 못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무너지고 있는 심각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수많은 태아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슬퍼해야 합니다. 또 그러한 일들은 세상에서만이 아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에 애통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에 대해 슬퍼하고, 또 지금의 교회와 다음 세대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염려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는 우리를 비웃는 세상 앞에서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 잘못된 정보들로 태아를 죽게 하는 거짓에 대해 진리로 반박하며,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지켜야 합니다.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며 공동체가 함께 이 싸움을 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무너진 진리의 벽을 세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

변치 않는 진리를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을 위해 싸울 방법과 방향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너진 생명에 대한 진리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함께한 모든 자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생업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강건함과 은혜와 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시고, 적들의 방해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이 캠페인을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생명을 사수하는 확고한 믿음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모든 태아의 생명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게 될 그 날까지 기도의 성벽을 쌓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정보와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고,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짓에 대응할 용기를 주옵소서. 바른 진리를 전하되 사랑과 겸손으로 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일 차를 위한 기도

우리는 인간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의 회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예레미야 1:4~5절, 새번역)

[묵상]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실에 있습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실만큼, 우리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잉태되기도 전에 그를 알았고, 그를 따로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존재는 이 땅에 보내지기 전부터 하나님에게 알려진 존재이며, 하나님의 크신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보내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낙태는 찬성하겠다는 것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며, 그 모든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속이며 낙태를 합리화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합리적인 말이 아닌, 그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가 아닌, 거짓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그 거짓을 진리라고 붙드는 이유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한 것이든, 누군가의 상처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든, 교만과 고집과 무지로 인한 것이든,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기도]

저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숨은 의도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저희가 다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부분까지도 다 응답하셔서 저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낙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생각과 아픔을 저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히 주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는 낙태가 있다고 말하는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아프고 힘겨운 상황일지라도, 생명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힘겨운 상황까지 모두 아시고 그 상황을 능히 도와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여성의 불행을 없애기 위해 태아가 죽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과거 산아제한 시대에 저지른 죄들을 용납하며 여전히 낙태를 용납하고 있는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생명에 침묵했던 교회들이 생명을 위해 이제 일어나게 하시고, 이 생명을 위한 교회들의 움직임이 세상을 흔들며, 세상 속에 태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일 차를 위한 기도

사람들이 잊었던 삶의 목표를 주님 안에서 다시 발견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흠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시편 104:27~30절, 새번역)

[묵상]

우리 삶은 하나님의 힘과 목적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첫 숨으로부터 마지막 숨까지, 우리가 몸을 떠나서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까지, 지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며, 그분께서 그러시길 원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한 자신의 영광을 위해 ‘나’라는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삶의 목표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알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큼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심을 신뢰하며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완전하고 만족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존귀하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잉태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듯, 또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일을 행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잉태된 영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호흡은 하나님께 있기에 그 호흡을 하나님이 거두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그 호흡을 끊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의 생명이 지켜져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사람의 선택에 의해 그들의 호흡이 멈추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저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당신이 나의 호흡을 붙들어 주시기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호흡뿐 아니라, 모든 호흡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때문에 생명의 호흡을 우리가 멈추게 할 자격이 없음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생명을 사람이 좌우할 수 없음을 세상이 깨닫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내 아이니 내가 그 생명의 생사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그렇게 속이려 할지라도,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런 생각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 어둠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려는 자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로 깨닫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고, 자신이 처한 힘겨운 상황까지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아이를 키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고민하는 자들을 사랑과 겸손으로 섬길 기회를 주시옵소서. 교회가 곤경에 처한 여성과 태아를 섬길 기관과 사람들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일 차를 위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행할 때,
겸손 가운데 행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5~8절, 새번역)

[묵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으나 왕궁이 아닌 변변찮은 노동자 계층의 가정에서 태어나기를 겸손히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를 추구하지도 않으셨고 세속적 권력을 구하지도 않으셨으며 소유물을 모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상에 계셨던 짧은 시간 동안 부와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이 세상의 '왕'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수많은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분은 당연한 것조차 누리지 않으시고 낮아지심을 선택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겸손과 연민, 관대함과 사려 깊음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사역을 묵상하며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치 있는 삶일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의 참된 기쁨을 얻도록 말입니다.

[기도]

죄인을 위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닮아갈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은 저희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이 얼마나 저희 영혼에 큰 기쁨을 주는지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희의 시간과 재정을 헌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원치 않는 시선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저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기를 키우기 힘든 가정, 미혼모, 그리고 잉태된 태아들과 혼자된 시설의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 겸손하고 성실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역은 저희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쁨은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일 뿐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평안과 기쁨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일 차를 위한 기도

낙태 시술자와 모든 낙태 지지자들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이사야 1:16~17절, 새번역)

[묵상]

미국의 3번째 대통령이자 영향력 있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인 토머스 제퍼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나라가 매우 걱정스럽다.” 사실 토머스 제퍼슨은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만 하고 관여는 하지 않는다고 믿는 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제퍼슨도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얼마나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자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부르셔서 정의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 사회가 낙태와 안락사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인 것은 정의롭지 못한 악한 행동이며 이기적이며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내 안의 불의를 깨끗이 씻어내고 불의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는 낙태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 안에 정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이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성을 위한다며 낙태를 옹호했던 사람들이 태아 생명을 존중하는 정의가 회복되도록, 돈벌이를 위해 낙태를 시술했던 사람들이 생명을 위해 재물을 포기하여 정의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정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정의를 삶 속에서 불의로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더 깨달아 알아가며 정의의 삶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불의한 법들과 가치관들이 믿는 자들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불의한 세상에 물들어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온전함과 아름다움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불의함을 회개하고 변화되어 교회의 불의와 세상의 불의를 향해 진리와 사랑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세상을 향해 진리를 선포할 때 지혜와 사랑, 기도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낙태 시술자들과 낙태를 지지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가치관과 싸워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사랑과 지혜로 진리를 전하며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도록 기도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정의로 구원을 얻어 참된 의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하는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일 차를 위한 기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미가서 7:18~19절, 새번역)

[묵상]

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윤리적으로 타락했을 때, 주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그들을 회개로 부르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의 번영은 부유한 자들을 완고하게 만들었고, 가난한 이들을 억압했으며, 다윗의 왕좌를 계승한 자들은 혐오스러운 일들과 우상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 자신은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이 아닌 정의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도덕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없애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시만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땅 교회들의, 진리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가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 만연한 불의와 부도덕, 하루에도 수천의 태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가장 끔찍한 죄악의 민낯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황폐해진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나로부터 정의가 회복되고, 교회의 정의가 회복되고, 이 땅의 정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의 가운데 올바르게 행동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교회를 진리로 지켜가 주실 것입니다.

[기도]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정의대로만 심판하신다면 저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로, 저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의 불의, 교회의 불의, 이 땅의 불의를 직면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백성들의 불의에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애통해하는 마음을 받아 불의가 정의로 바뀌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의를 의롭다고 말하는 무너진 진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낙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저희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정의가 무엇인지 목회자들을 통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전하기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죄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에 취해 베푸는 것과 정의를 잊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눈이 멀어 주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저희의 귀가 막혀 주님의 진리를 듣지 못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와 정의를 행할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령 하나님께 저희 삶을 더욱 내어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저희 삶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일 차를 위한 기도

낙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자신 아기의 삶이 이미 시작했다는 것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도록 기도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누가복음 1:41~44절, 새번역)

[묵상]

예수님은 태아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도 또한 태아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마리아에게 잉태된 태아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미 잉태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잉태된 태아는 엄마와 독립된 다른 인격체로서 자신의 독립된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보통 기다리던 임신을 하면, '천사가 찾아왔어요.', '아기를 선물로 받았어요.'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임신을 확인한 순간부터 새로운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기를 원하지 않을 때는 마치 생명이 아닌 것처럼 대하여 낙태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고 원하지 않음에 따라 생명이 '생명이 아닌 것'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은 처음부터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잉태되었을 때부터 메시아의 인생이 시작된 것처럼, 이 땅에 잉태된 모든 태아의 인생도 소중한 삶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도 우리와 똑같이 소중한 한 인생의 삶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도]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인생의 시작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천사의 모습으로 저희에게 오시지 않으셨고, 가장 작은 인간의 모습으로, 바로 태아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었음을 저희가 이 시

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땅에 가장 작고 연약한 존재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메시아의 인생이 가장 작은 태아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 모든 생명의 인생도 바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의 눈을 열어 주셔서 소중한 인생의 시작이 태에서부터 시작됨을 알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태중에 있는 모든 생명을 보호하여 주셔서 환영받지 못한 잉태된 아이들까지도 무사히 자신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탄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들에게 준비되지 않은 임신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접 키울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임신 지원센터와 입양기관의 도움을 얻게 하셔서 여성이 보호되고 태아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일 차를 위한 기도

의료계를 위하여, 그들이 인간 신체에 대해 알고 있는 진실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시편 139:13~16절, 새번역)

[묵상]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거대함과 인간과는 다른 차원의 분이심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2~4절), 어디에나 계시며(7~12절), 사랑과 친절을 지니시고(17~18절), 공정하시며(19~20절), 의로우시고(23~24절)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는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산들과 바다, 멀리 떨어진 은하계에 대한 창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저자는 창조의 경이로움을 표현하기 위해, 자궁 안에서 손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14~16절).

하나님이 우리를 태에서 지으신 것을 표현할 때 언급된 히브리어는 ‘라캄’으로, 바느질이나 자수와 같이 다양한 색상의 수를 놓은 예술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적 솜씨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우주의 신비를 연구하는 사람 중에 놀랍고 광활한 우주의 빈틈없는 질서에 감격하며 창조주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계에서 종사하는 사람 중,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체의 신비와 경이 앞에 창조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을 보고도 무감각하여 하나님의 창조 신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태아를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 낙태를 무감각하게 진행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누군가의 태아는 정성껏 돌보고, 누군가의 태아는 무참히 낙태하는 그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인체의 신비를 다루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모든 자가 인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니다. 한편에서는 출산을 한편에서는 낙태를 진행하는 낙태 시술 종사자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풍성한 공허 안에서 저희를 손수 아름다운 작품으로 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로 저희가 경이롭고 아름답게 지어졌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저희의 정하여진 날들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셨고, 주님 책에 기록되었고, 주님의 손으로 지음 받은 놀라운 사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의 신비와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모든 이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를 통해 진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몸을 다루는 직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작품을 보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태아 생명을 다루는 산부인과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생명은 모두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세상에 모든 잉태된 아기들이 태어날 기회를 얻도록 공허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일 차를 위한 기도

낙태 종식과 전 세계에서 임신 지원센터를
세우는 운동이 확대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요한계시록 12:4~5절, 새번역)

[묵상]

요한계시록 12장은 뭔가 ‘큰일’이 진행 중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의 탄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태어나는 자와 죽이려는 자와의 전쟁입니다. 이 일은 하늘에서의 전쟁을 포함하며 실제 전투는 이곳 지상, 즉 베들레헴의 아기와 갓세마네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 지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강도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마치 산모의 진통과도 같이, 그 고통은 점점 커지다가, 새로운 생명 탄생으로 정점을 이룹니다.

50년 전에 촉발된 미국의 낙태 합법화는 통탄에 가까운 기도를 사람들의 마음에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임신 지원센터와 미혼모 시설을 개원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3,000여 개가 넘는 위기 임신 지원 센터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을 뻔한 수많은 아기가 탄생하고 있고, 버려질 뻔한 수많은 아기가 돌봄을 받고 있으며, 외면받고 외로움 속에 놓인 수많은 여성이 위로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 모두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열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로 2020년 12월 말까지 법안을 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표류하여 입법 공백 상태로 수많은 태아와 여성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2022년 2월 시점). 우리는 낙태를 당연시하려는 문화에 대항할 뿐 아니라, 미국의 사례와 같이 준비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여성과 태아를 돌보는 임신 지원센터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국가가 해결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닌,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센터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섬기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여성들과 아기들을 섬기기 위해 시간과 재정을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여기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기도]

죽은 자도 살리시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이 생명을 주관해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생명을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또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기뻐하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당시에든 헤롯에게 죽임당할 위험이 있었고 실제 많은 아기가 죽었습니다. 현시대에도 당시처럼 수많은 아기가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지으신 목적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닌, 저희의 시간과 재정과 헌신으로 그 생명을 섬기게 하옵소서. 교회가 임신 지원센터들을 세워가게 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출산을 결심하는 여성들을 돌보게 하시고, 부모가 키우지 못하는 아기들을 돌보게 하소서.

모세를 구했던 애굽의 산파들과 같이, 위기 임신 상담가와 복지사가 낙태를 권유하지 않고 생명을 지키도록 돕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를 보내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맡은 소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디에서든 생명을 살리는 이 위대한 과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감동하게 해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일 차를 위한 기도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그리고 각각 개별적으로 주목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우리가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에 두셨습니다.
(시편 8:3~6절, 새번역)

[묵상]

우리는 얼마나 자주, ‘멈춰 서서 장미의 향기를 맡아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앞에 있는 긴급한 업무에 굴복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분주함이 거룩한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살펴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닐까요?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해 말하며, 그분이 손수 만드신 광활한 하늘과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 놓인 다른 과업들로 인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는 다르게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생각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당신 최고의 영예인 ‘창조의 걸작품’ 즉 인간을 가장 주목하고 계시고 쉬지 않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결코 복제되거나 대체될 수 없는 창조된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적절하게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 연민 또는 우리와 교감하시려는 욕구를 완전히 묘사할 수 있는 문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은 아마도 어머니가 갓 태어난 자기 아기를 처음으로 바라볼 때와 비슷할 것입니다. 기다리던 자녀를 처음 안아본 부모의 그 감격스러운 감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서, 그분께서 창조하셨고 사랑하고 보호하라고 우리에게 요

청하셨던 모든 생명에 대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기도]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장엄한 아름다움을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담아 보여 주시고, 그중에서도 저희를 가장 경이롭게 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 모든 생명을 향해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모든 생명에 대해 존귀함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보시는 모든 잉태된 생명 하나하나가, 바로 나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시선과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자이기에 이렇게까지 돌보시는지 감히 다 알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저희 또한 값없이 누군가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며 섬길 수 있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일 차를 위한 기도

저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음을 모두가 깨닫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복음 1:1~3절, 새번역)

[묵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시간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는 다르시며 살아계시고, 사랑과 진리, 그리고 생명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위격이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이 세 분은 항상 함께이십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영광스러운 신비이며, 이 세 분은 서로 사랑과 진리, 섬김으로 하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성부께서는 성자를 통하여 모든 인간 생명을 포함한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헤엄치고 있는 태아, 아버지 팔에 안겨서 미소 짓고 있는 갓난아기, 병원 병상에서 고통스럽게 울고 있는 아이, 뛰어가는 활기찬 십 대 청소년,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노인. 이 모든 사람은 성자를 통하여 성부에 의해 창조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잉태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길 없이 창조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자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까지도 그분의 손길로 지으셨습니다. 그 모든 생명을 사랑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들 하나하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생명,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생명, 내가 원하는 태아의 생명만이 아닌, 하나님은 모든 자의 생명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길 원하십니다.

[기도]

거룩함과 사랑,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놀라운 사랑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 안에 불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당신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늘 감격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당신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장 친밀히 돌보아 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시작과 마지막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손수 창조하신 모든 잉태된 생명을 돌보고 계십니다. 생명의 시작을 저희가 주관할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의 마지막, 그들의 죽음에 저희가 관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여 내가 원할 때 생명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생명을 지울 수 있다는 생각들을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희에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돌볼 의무만 있을 뿐, 그 생명을 해할 자격은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일 차를 위한 기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죄책감 속에 있는 낙태를 경험한 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떠한 정죄도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로마서 4:7~8절, 새번역)

[묵상]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설명하며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있는 다윗의 말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 그래서 죄가 없다고 인정받은 자는 행복한 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을 살해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죄로 인한 비참함을 깨달았고,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그 죄악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궁홀히 풍성하신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회복시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죄로부터의 자유와 의로움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와 같은 신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얻은 후에는 죄책감에 우리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죄악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뒤에도 자신을 책망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오히려 용서하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업적은 우리의 모든 흉악한 죄를 덮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책감에 머문 자들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들에게 용서의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겐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하고, 그들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기도]

저희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로 인해 용서받고 참된 자유로 살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낙태의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죄책감과 여러 후유증에 시달리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분이심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서 당신의 치유와 회복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며 여전히 죄에 묶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빛으로 그들에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여 죄를 방관함으로 공범이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까 두려운 마음에 침묵하는 자들에게, 죄의 공범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정죄하는 것이 아닌, 죄는 죄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일 차를 위한 기도

예기치 못한 자녀라도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히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창세기 1:27~28, 새번역)

[묵상]

지난 세기 초 우생학 신봉자였던 마거릿 생어(Margaret Sanger)는 인종차별뿐 아니라 인간을 우등과 열등으로 나누어 장애인, 가난한 사람, 약자들을 경멸하며 강제 불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산아 제한' 운동을 일으켜 세계의 여러 나라의 기본 출산율이 크게 낮아지게 했습니다. 그녀가 세운 미국 산아제한협회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낙태를 많이 하는 '가족계획협회'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학자들은 지구가 인구과잉으로 자원이 부족하다며 피임 장려와 낙태 합법화로 인구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번성하여 이 땅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 말은 자연을 보호할 필요가 없거나 지구를 착취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아끼고 다스리는 것은 인간을 아끼고 다스리는 것도 포함되며, 자원 고갈을 이유로 낙태 허용해 인간의 수를 감소시키려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닌 또 하나의 문제를 야기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늘 말씀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축복이자 하나님을 충실히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이며, 또한 자녀들은 화살통의 화살이자 노년 부모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의 예상과 달리, 낙태는 기혼자가 약 60~70%입니다. 이는 1960년대부터 40년간 지속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낙태를 피임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문화에 깊이 스며들어 온 피임 문화는 피임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할 수 없더라도 피임은 미혼자에게 생명에 대한 책임 없는 성관계에 집중된 성 문란을 야기 시키고 기혼자에게 자녀를 원하지 않는 무언의 분위기와 예기치 않는 임신에 대한 낙태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피임 문화는 자녀를 내가 갖고 싶을 때 가질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어 생명과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잊게 하고, 피임은 100%가 없기에 임신을 원하지 않아 피임을 한 사람들에게 예기치 않은 임신이 발생했을 때 낙태를 더욱더 쉽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지구를 가득 채우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철회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어 자녀라는 선물을 받아들이게 해 주시고, 세상에 잉태된 모든 아기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저희의 참된 아버지가 되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 형상과 같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득히 넘치기 원하셔서 저희를 통해 번성하라 명하셨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이 명령의 본 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여, 복음을 전하기보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고, 나의 자녀가 많아지면 풍요로운 삶을 잃을까 두려워 자녀의 수를 제한하는 삶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저희의 이기적인 생각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도록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혼자 중에 늦둥이라서 부끄럽다는 핑계와 경제적인 문제,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낙태를 선택하는 자들을 붙잡히 여기시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의 아이는 아니지만 준비되지 않은 임신으로 고민하는 가정과 여성들을 돌보는 자들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설에서 혼자가 된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입양 문화가 형성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일 차를 위한 기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생명을 희생함이 아닌,
생명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도록 기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1절, 새번역)

[묵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을 위해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찬양 시간과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늘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 시웁소서’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학위, 나의 경력, 나의 연인, 나의 미래를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러한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예기치 않은 임신을 맞이할 땐 태아가 나의 학력과 경력, 내가 계획한 미래를 방해하는 존재로만 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은혜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낌없는 사랑과 가장 높은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에서도 낙태하는 자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닌, 자신의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낙태를 쉽게 생각하는 여성이 자신의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인도하기를, 그렇게 하여 그녀가 우상숭배의 제단에서 자기 아이를 보호하고, 자신을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저희의 미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그 어느 신도, 그 어느 사람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희의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며, 저희의 몸을 산 제사로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어떤 것을 드려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경력과 재정과 시간과 미래를 희생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아를 자신의 미래를 위해 포기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태아와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그 생명을 책임지실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상황과 사람과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일 차를 위한 기도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마태복음 5:43~44절, 새번역)*

[묵상]

모든 사람이 이 캠페인이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최전선에서 기도 캠페인을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모두 타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들의 비판과 비난에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미워하거나 해를 입히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며 선을 베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비난하는 그들을 위해 오직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영원한 희망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욕하고 미워하고, 악의적으로 홀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희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이 달라지길 기도하며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들도 여러분 안에 있는 희망,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죄 많은 저희에게 가장 위대한 용서를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에 저희는 소망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를 잊지 않게 하셔서 저희를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니신 사랑과 겸손, 친절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화나게 하거나 해를 입히려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저희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 주시고, 인내와 사랑의 마음으로 응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신자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겐 무언가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와 시선들은 모두 저희가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진리를 전할 기회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받는 기회를 오히려 진리와 사랑을 드러낼 기회로 삼게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겸손히 응답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인내와 사랑과 겸손을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평안과 행복을 발견하고,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전하는 태아가 생명이라는 진리를 그들이 받아들이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일 차를 위한 기도

이제껏 기도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받는 슬픔과 피로감, 실망이
기대와 소망,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6~7절, 새번역)

[목상]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 참여하며 죽어가는 태아로 인한 슬픔과 우리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한 실망과 피로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캠페인을 통해 그동안 구해진 수많은 아기의 생명을 생각하면,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64개국 900여 개의 도시에서 진행된 이 캠페인을 통해, 약 2만여 명의 태아가 구조됐고, 100여 개의 낙태 시설이 폐쇄되었으며, 200여 명의 낙태 시술 종사자들이 낙태를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열매를 맺기까지, 2만여 개의 교회들과 100만여 명의 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태아들을 위해 기도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갈등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고, 죽음의 위기에 놓인 태아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우리의 재정과 헌신으로 섬길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이미 경험했던 낙태로 인해 괴로워하는 여성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했고, 더 많은 낙태 시술 종사자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가 생명을 살리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기도했고, 더 많은 시민이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도록 생명 운동이 더욱 일어나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죽어가는 태아를 향해 애통과 긍휼로 일어나 임신 지원센터들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모두 들으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자들의 헌신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됨 없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대로 응답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우리의 승리이며,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생명을 위해 걸어 나갈 힘입니다. 이 걸음을 함께 걷는 자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기도]

저희의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주신 힘과 입술과 마음으로 저희 모두가 이 40일이라는 시간을 기쁨으로 걸어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 저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순종하여 기도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게 하셨으니, 이제 당신께서 기도를 응답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여전히 그대로인 것만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며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를 통해,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당신의 계획은 항상 저희를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동안의 기도 캠페인은 마쳐지지만, 저희가 뜨겁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각자의 자리에서도 놓지 않고 기도하도록 계속된 기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 드립니다. 홀로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일 차를 위한 기도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곳,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요한계시록 21:4~5절, 새번역)

[묵상]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날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예언적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인해 어딘가에서 낙태 행위가 금지될 때 우리가 얻는 승리는 죽음 자체가 결정적으로 정복되는 그날에 대해 말해주는 예언적 사건이기 때문이며, 낡은 질서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만들어질 미래가 지금의 역사 안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우리는 생명 수호 운동의 전사로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 나라에 날마다 고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모든 악이 정복되는 그 날이 오고 있다는 희망 속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형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다가올 미래이며, 우리의 싸울 힘은 결국 승리한다는 말씀의 확신입니다.

눈물이 날 때, 우리는 모든 눈물이 씻겨지는 그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의 파괴적인 힘에 직면할 때, 죽음이 결국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삼겨지는 그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낙태를 반대하며 고생스럽게 수고할 때, 주님의 칭찬과 함께 온전한 휴식과 평화의 그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곳,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

새 예루살렘에서 저희를 맞이하실 아버지 하나님,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있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지만, 아버지의 도움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은 저희의 온전한 소망이 됩니다. 당신의 약속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헛되고 사라질 세상의 것을 소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고 모든 고통과 죽음에서 저희를 자유롭게 해 주실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 저희의 사라질 것들을 희생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선택을 통해 얻어질 영혼의 양식을 먹고 저희가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더 큰 영의 양식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영혼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를 위한 기도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 안으로 우리를 환영하실 때까지
계속 ‘죽음의 문들’에 맞서 싸우도록 기도합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16:18절, 새번역)

[묵상]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을 견뎌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전투에서의 성문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죽음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죽음의 문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교회를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수동적인 것이 ‘죽음의 문들’이며 그리스도의 교회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겨낼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교회는 적극적으로 적의 영토 안으로 뛰어 들어가, ‘죽음의 문들’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인 복음을 전하며 죽음에 놓인 자들을 구원하는 일이기도 하며, 실제로 죽음에 놓인 자들을 위해 기도와 섬김으로 구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적들의 ‘죽음의 문들’ 앞에 달려가 생명의 주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죽음의 문들’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온전히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했고, 죽음의 문들을 기도로 깨뜨리며 죽음을 정복하고 생명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넓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승리를 쟁취하는 이 전쟁에 기쁨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이 전쟁을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성문들은 진실 앞에 무너지고, 죄의 성문들은 은혜 앞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죽음의 성문들은 생명의 백성인 교회의 현존 안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기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승리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가 보내신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며 승리를 선포하고 정복해 나갈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남겨진 전쟁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전쟁에 승리하셨고 저희는 세상 곳곳에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한 것을 전하는 기쁨의 삶이기에 이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의 진리를 더욱 기쁨으로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지 못하고, 어둠과 죄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참된 진리를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몰라 그분께서 주신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종노릇 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가운데 저희가 선포하고 기도한 주의 승리의 열매가 곳곳에서 맺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저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